

인, 아티샤(Atisa) 스님 사상과 흥법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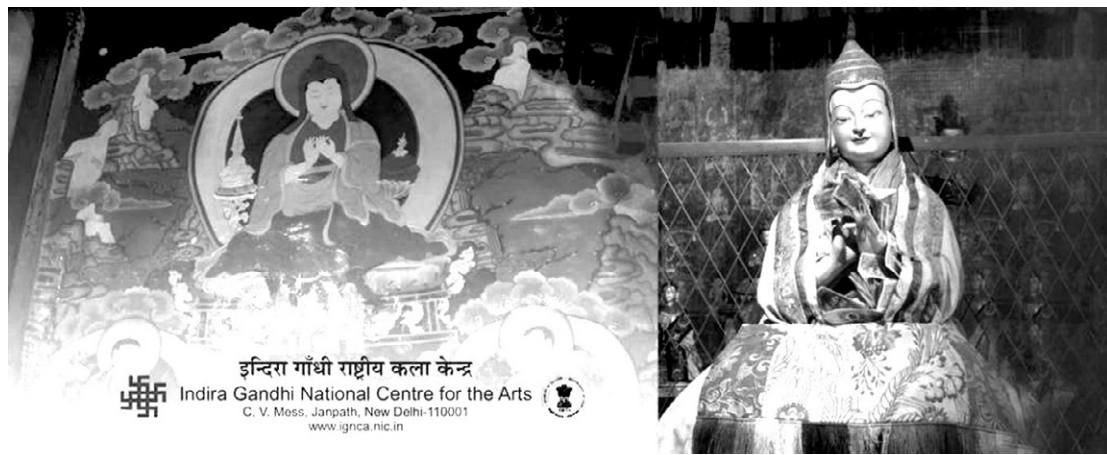
아티샤 스님 전법 1000년 맞아 IGNCA 등 거대 학술·문화행사 개최

14대 달라이 라마의 영적 스승으로 널리 알려진 아티샤(Dipankara Srijnana Atisa · 980~1054) 스님이 인도 인문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디켄헤럴드(DeccanHerald.com)는 8일 "IIC(India International Centre)가 8일부터 이틀간 '아티샤 스님의 인도네시아 전법 1,000년(1,000 Years of Atisa's Visit to Indonesia)'을 주제로 학술·문화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인도의 대표적인 인문학 연구기관 IGCA(Indira Gandhi National Centre for Arts)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아티샤 스님의 사상과 흥법'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전했다.

뉴델리에서 열린 '아티샤 스님의 인도네시아 전법 1,000년' 주제 기념행사에서 게셰 담달(Geshe Damdul · Director of Tibte House)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아티샤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지 1,000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학술·문화행사 개최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스님은 "당시 인도불교계의 최고 강백으로서



인도 대표적 인문학 연구기관인 IGCA(Indira Gandhi National Centre for Arts)는 2월 21~23일 '아티샤 스님의 사상과 흥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사진은 IGCA의 홍보사진(왼쪽). 아티샤 스님(오른쪽)은 동인도 사호르 왕국의 왕자 출신으로서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출가에 승려가 됐다.

후학을 지도하던 아티샤 스님의 전법은 인도네시아 대중들에게 부처님 지혜를 배우고 선근 토양을 가꾸는 일대 계기"라며 "이번 학술·문화행사는 아티샤 스님의 전법을 기점으로 인도와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간의 불교철학·문화의 연결고리를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팔 불교계의 참(Charm) 무(舞)와 차리아(Charya) 무로 서막을 올린 이번 기념행사에서도 불교

철학·건축학·고고학자 등 40여 명이 '아티샤 스님과 밀교(Vajrayana Buddhism)'를 주제로 발제와 논평에 나섰다.

이밖에도 베노이(Benoy K. Behl · 인도) 감독의 불교영화 스피티(Spiti) 등 12편의 단편영화가 상영됐고, 행사장 곳곳에서는 사진작가 에이치 마츠모토(Eichi Matsumoto · 인도계 일본인)의 사진전(展)이 마련됐다.

베노이 감독은 "단편영화 12편은 ASEAN 지역의 불교유산을 도큐먼트 영상으로 담아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1,000년 전 아티샤 스님이 국경을 초월해 일컫는 '불교 소통의 장' 새롭게 조명하고, 지금의 인도불교가 아티샤 스님 당시의 그 모습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머나먼 길을 걸어 가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금의 불교는 아티샤 스님이 수학하고 강의했던 나라인 대학(Nalanda University)과 비크람실라 대학(Vikramshila University)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마츠모토 작가는 "두 대학의 불교 공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편을 사진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는 아티샤 스님을 중심으로 한 인도 불교가 아시아 불교에 미친 모든 공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마츠모토 작가는 이번 사진전에서 러시아, 라사, 부탄, 네팔,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18개국에 산재한 불교유산을 사진으로 선보였다. 이 중에는 아티샤 스님의 탄생, 수학, 포교, 전법 등과 관련된 지역과 사원 등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IGCA(Indira Gandhi National Centre for Arts)가 '아티샤 스님의 사상과 흥법'을 주제로 마련한 학술행사도 인도

인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디켄헤럴드는 IGCA의 자료를 인용, "인도, 중국, 영국, 미국, 방글라데시 등지의 불교학자들이 참여할 이번 학술회의는 1,000년 전 60세의 고령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티베트 밀교의 기틀을 세운 아티샤 스님의 사상과 흥법을 조명될 것"이라며 "이는 인도불교와 티베트불교의 관계의 심층을 들춰내 살피는 자리라는 의미도 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디켄헤럴드는 "IGCA는 아티샤 스님이 티베트전법 당시 불교의 정수를 알리는 방편으로 삼았던 만다라를 시험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인도 동벵골 지역에서 태어난 아티샤(982 ~ 1054) 스님은 나란다 대학에서 수학하고 비크람실라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쳤다. 당시 아티샤 스님은 티베트 오드(Yeshe Od) 왕의 초대를 받았지만, 계속 거절했다. 스님은 60세에 이르러서야 히말라야를 넘어 티베트 전법에 나서며, 말년을 보냈다. 이때부터 티베트불교는 밀교 전통을 반석으로 만개하기 시작했다. 그 후 티베트불교는 중원의 원(元)나라에 전파돼 국교가 됐고, 몽고와 명(明), 청(淸)나라에서도 융성했고, 그에 힘입어 러시아, 북인도에 퍼졌다. 한국 불교에도 라마교의 영향을 적지 않게 미쳤다. 오종욱 편집위원

우명주 박사의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불교 <6>



"나는 더 이상 힌두신을 숭배하지 않겠다"

신불교의 특징

인도의 신불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불교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한 개인이 주도한 대규모 개종식으로 인해 탄생했다는 점에서 그 시작부터가 독특한 일이며 그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이 모두 한 특정한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는 점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이다. 따라서 신불교는 그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재가 리더십에 대한 강조는 신불교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것은 암베드카르가 자신의 저서 <붓다와 그 가르침>에서 출가자와 재가자의 평등함을 강조한 결과이다. 그는 책에서 법은 출가자와 재가자에게 평등하게 설해졌으며 출가자와 재가자의 차이는 생활양식에서 나오는 것이지 법에 있어서는 동등하다고 주장한다.

집단개종식에서도 암베드카르는 미얀마 출신의 찬드라마니 스님께 수계를 받았지만 자신을 따라 개종한 불가지족민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수계를 했다. 이를 두고 이후에 재가자가 수계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암베드카르 사후에 열렸던 수계식들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승려들보다는 암베드카르가 세운 인도공화당의 지도부들이었다. 정치지도자들에 의한 개종운동은 외부인들에게는 이상해보일 수 있었지만 그 운동의 내부에 있는 이들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도자 암베드카르와 함께 일했던 인물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천근감을 느꼈다.

현재도 인도에서 가끔 열리고 있는 집단개종식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인물들은 정치지도자이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인도정의당과 로드붓다 클럽 등을 세운 우디트 라즈가 있다. 그는 지난 2001년 델리에서 개종식을 열고 자신도 그 자리에서 불교도가 되었다. 또한 인도공화당의 당수 아타왈레 띵다스 반두가 있다.

그러나 이런 개종식이 계속해서 정치인들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외부에서는 그 개종에 대해 좋지

재가 리더십에 대해 강조

"출·재가자는 평등" 주장

정체성 위한 22가지 서원 만들어

신도들, 암베드카르 사후 신격화

많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힌두교 관련 정당들은 불가지족민들의 개종을 종교와 관련 없는 단순한 정치행위로 매도하고 있고 언론들도 그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의 불교도들도 그런 식으로 열리는 개종식이 진정한 불교로의 입문식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불교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개종식 이후 새로이 불교도가 된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 또한 미흡하다.



암베드카르 우디안 기념관 (Ambedkar Udyan Memorial). 코끼리 위에 암베드카르가 서있다.

가령 2001년 우디트 라즈에 의해 열렸던 델리에서 개종식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진정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싶어 참석한 이들도 물론 있었지만 개종에 대한 결정은 행사 참여 후 하겠다며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이들도 있었다. 심지어 주최 측이 제공하는 경비로 그저 서울구경에 나섰다고 말한 참가자들까지 있었다. 또한 이날 정부가 행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경찰들이 경비에 나섬에 따라 개종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가 상당수 있었는데 우디트 라즈는 개종식에 참가하지 못한 이들도 참가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도 불교도가 되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왔다.

또한 신불교는 다른 불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계

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암베드카르가 자신의 개종식에서 제창한 22가지의 서원이다. 이것은 전통불교의 오계 만큼이나 신불교도들에게는 중요한 지침인데 여기에는 불살생, 불망어, 불음주 등의 전통계율도 포함되어 있지만 신불교도들의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는 것들이 더 많다. 예를 들면 '나는 더 이상 힌두신을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힌두종교의식을 행하지 않겠다.', '브라만이 집전하는 의식을 허용하지 않겠다.', '부처님이 힌두신 비슈누의 화신이라는 말을 믿지 않겠다.' '인간의 평등함을 믿겠다.' 등의 계율을 보면 전통불교와는 다른 신불교만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암베드카르가 신불교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신불교만의 특징일 것이다. 집단개종 후 불교도들에게 가장 큰 기념일은 부처님 오신날과 암베드카르 탄신일이다. 이 두 행사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치루어진다. 특히 암베드카르의 추종자가 많은 마하라스트라주의 신불교도들은 불교의 4대 기념일로 부처님 오신 날, 개종일, 암베드카르의 출생일과 사망일을 기념하고 있다.

또한 인도의 거의 모든 불교사원에서는 암베드카르의 사진이 불상과 함께 놓여져 있고 그를 기리는 많은 문학작품, 포스터, 그림 등에서 암베드카르는 거의 부처님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그의 사후에 나온 노래에는 그가 신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그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신이 인간으로 화했다가 사라진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인도의 신불교도들은 일반적인 삼귀의 대신 사귀의를 하는데 이는 물론 기존 삼보에 대한 귀의에 암베드카르에 대한 귀의가 더해진 것이다. 인도의 신불교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감화보다는 암베드카르 개인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심 때문에 불자가 된 것이 사실이므로 사귀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개인 우상화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여지가 다분하다. 그들을 불교로 이끌어 준 암베드카르에 대한 존경심은 충분히 존중받아야겠지만 그것이 이런 형태로 표출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존경심으로 자신의 말을 따르는 안 된다고 하였던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다.

태고원용 불교대학 개강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학인모집

- 교육과정**
 - 초,중급반 : 조석예불, 중성,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다림(목탁,요령), 요잡, 천도의식, 49재, 관음시식
 - 고 급 반 : 초,중 이수자(상주권공)- 할향, 등계, 합장계, 고행계, 개계, 쇄수계, 복청계, 도량계, 참회계
 - * 작법 : 사다라니, 화의재다라니, 신중작법, 육건이, 다계나비춤작법, 운심계작법, 가지계 (사물은 소리와 엮물과 함께 교육)
- 강 주 : 상진스님**
 - 개강일시 : 2013년 3월 7일
 - 장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46-1 한국불교태고종충북교구종무원연수원
 - 모집학과 : 불교의식(범패)학과
 - 강의시간 : 고 급 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초,중급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 상기 수업시간과 요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 강 료 : 6개월 30만원 (교재비 별도) * 초중상 같이 배우실 분 10만원 추가
- 제출서류 및 기간**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반명함사진 1매 (태고종 승려는 승적증명서 1통, 수계증 사본)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접 수 처 : 충북교구 종무원 / 전화 043)265-7100

태고원용 불교대학 학장 조원해 합장

2013

2013(불기 2557)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종교와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과 정		기 간	교 과 목	요일	자 격	시 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 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년	불교입문, 부처님상에대승불교, 불전개설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18:30 ~ 19:50 · 2교시: 20:10 ~ 21:3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20만원 (1년 10만원씩)
	2학년		천태불교학, 중국불교, 범회경 I · II	화	이외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선사상, 유식사상선수경, 정토사상 화엄경, 포교방법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18:00 ~ 19:20 · 2교시: 19:30 ~ 20:50 · 3교시: 21:00 ~ 22:20	· 지원서 1부 · 반명함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25만원)

원서접수		원 서 교 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02.3460.5300	평택 법장사	031.655.9090	· 접수 : 2012년 11월 19일(월) ~ 2013년 2월 15일(금) 18시까지 · 면접 : 2013년 2월 16일(토) 오후 16시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미올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 관문사에서 하차)
신촌 성통사	02.336.2052	수원 용광사	031.255.4105		
봉천동 명림사	02.889.7272	구 리 금성사	031.563.9364		
구로 명화사	02.854.0196	안양 대안사	031.459.3666		
망우동 심통사	02.496.3803	안산 월광사	031.419.5048		
성남 화성사	031.745.1482	부천 천화사	032.671.5353		
일산 화성사	031.905.2912	군포 상락사	031.392.0924		

서울金剛佛敎大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